

2015년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한국생명의전화를 만나 현재의 모습과 활동을 소개합니다.

수화기 너머 사람의 온기를 전해온 50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한국생명의전화는 국내 최초의 전화상담기관으로 50년간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을 실천해왔다. 왼쪽부터 한국생명의전화 나선영 처장, 하상훈 원장, 우혜진 센터장.

1976년 단 두 대의 전화기에서 한국생명의전화가 시작됐다. 이름도 얼굴도 밝히지 않은 수많은 누군가의 망설임과 절박함이 이어졌고, 자원봉사 상담원들은 단 하나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함으로 전화기 너머 목소리를 붙들었다.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한 채로 지나간 통화가 이어진 것은 전화기 너머에 누군가가 있어서 내 말을 들어주며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온기를 전해주기 때문이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작은 마음을 나뉘운 한국생명의전화는 50년간 절망이 다짐으로 바뀌고, 끊어졌던 삶의 끈이 다시 튼튼하게 연결되는 기적을 만들어왔다.

전화를 통해 생명을 지키다

우리나라 최초의 전화상담 기관으로 외로움과 고립, 자살 위기 속에 놓인 이들의 이야기를 24시간 들어온 한국생명의

전화는 ‘도움은 전화처럼 가까운 곳에’라는 표어로 삶의 벼랑에 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시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은 “지난 50년간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한다.

“1970년대 중반만 해도 우리사회에는 정신건강이나 상담이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 한국생명의 전화 출범 당시 전화라는 소통수단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다시 사회와 연결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1997년 말 IMF 외환위기 직후에 자살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을 때 한국생명의전화가 중심이 되어 한국자살예방협회를 만드는데 기여했고,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다 각화했지요.”

한국생명의전화는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2004년 생명사랑 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고 2006년에는 자살 유가족을 위한 생명사랑 밤길걷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또 청소년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전화 및 사이버상담사 양성교육은 물론 자살 문제에 깊이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생애위기 상담사 교육과정도 개발해 보급했다. 그리고 사회적 생명 안전망 역할을 해온 공로로 2015년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전화상담 문화를 키운 인큐베이터

하상훈 원장은 “지금의 한국생명의전화가 존재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말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자기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1년여의 교육을 받고 대가 없이 순수한 자원봉사로 참여해요. 쉽지 않은 일인데 거의 50년 가까이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에 깊은 정서적 공감과 생명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축적된 전화상담 노하우는 전화상담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했다. 한국생명의전화는 전화상담의 교육 체계와 이론을 정리하고, 여러 기관에 노하우를 나누며 국내 상담 문화의 토대를 넓혔다. 국방헬프콜의 전신인 국군생명의전화도 한국생명의전화가 축적한 상담 운영 경험과 교육 체계의 도움을 받았다. 현재는 위기 상황뿐만 아



생명사랑 밤길걷기 행사는 매년 9월, 세계자살예방의날을 기념하여 개최하고 있다.



청소년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라이키' 리더 교육 현장.

니라 마약·도박 등 다양한 중독 상담 분야의 전화상담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공감과 진심

최근에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디지털 마음돌봄 서비스도 넓혀 가고 있다. 청소년 상담채널 라임(Lime : Life Mate)'은 셀프 케어와 심리검사, 고민 상담 등은 물론 채팅·음성·화상으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 상담 전문 앱이다.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 '라이키(Likey : Life Key for Friends, 생명존중 문화를 전파하는 또래 친구를 의미)'는 학교 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으로 초·중학생 또래 리더인 라이키를 양성해 마음보호훈련을 실시하고 생명존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상훈 원장은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따뜻한 공감과 진심”이라고 말한다. “전화기에서 시작해 인터넷, 스마트폰, AI 등 연결해주는 도구는 바뀌었지만 사람과 사람, 생명과 생명을 연결하는 일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생명이 풍성하게 살아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반세기 전 수화기에서 시작된 그 기적은 오늘도 누군가의 어두운 밤에 온기를 더하며 내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글 편집부